

세상을 바꾸는 NGO-민생에 힘이 되는 민생정치!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필자 소개 : 안진걸 010-2279-4251, ahn8518@gmail.com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억울한 일 등 개인적 상담이나 좋은 정책 및 공익적 제보-제안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강사 안진걸은 현재는 민생경제연구소장,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상지대 초빙교수, 상지대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애인자립대학 전 강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고, 전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00년·2004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간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국민대 강사,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등으로 일했습니다. <되돌아보고쓰다-가난한이들을 위한민주주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외 NGO들을 매우 사랑하여 군인권센터·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 회원, 통일맞이 운영위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평화네트워크 회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통신비인하캠페인단 실무진, 장애인인권포럼 이사 겸 회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회원,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한국청년연합회 회원, 나눔문화-세이브더칠드런 회원, 전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 민연련-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경실련-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후원회원으로 매달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엔지오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안진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에서는 강동시민연대-강동희망나눔센터-강동송파열린사회-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국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회원-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문위원, 한상총련 자문위원 등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진걸은 현재 전국의 각계각층 엔지오 80여 곳에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목표는 한달 100여곳의 엔지오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강사의 고민과 계획>

- 저는 2018년 3월 사랑했던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은 서민경제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추진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지대 초빙교수, 경희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장애인자립생활대학 강사로 많은 학생들과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청년·서민·장애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tbs tv에서 티비민생연구소 프로그램을 객원화 개그우먼, 박철민 방송인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되돌아보고쓰다-가난한이들을 위한민주주의> 책도 펴낸 후, 전국에서 책과 관련한 강의, “세상을 바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두 번째 책, “세상을 바꾸는 ngo 스토리”(가칭)를 펴낼 계획입니다.

- 돌이켜보면, 저는 2016년~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다 걸기’를 하고, 그때 6달 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촛불시민혁명에 주력한 것을 평생의 보람과 긍지로 여기며, 또 함께 해주신 수천만의 촛불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제 공공기관, 제 정치세력들도 정말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문제의 해결, 노동 존중,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문화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일, 사회 곳곳의 부당한 적폐 청산 등에 역행 또는 소홀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응하고, 대안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개혁과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면서도,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세로 냉정하게 비판도 하고 관련 대응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시민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다종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고, 이는 무척 좋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로서 노동존중, 환경문제 대응, 국민들의 안전권 확보,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축복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불공정 문제에 시달리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고통과 부담에 절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뛰어들고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수행하는 공익활동 하나하나, 시민사회 인사들이 하는 사회 개혁 추진 활동 하나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맞지만, 당대 시기의 민초들과 서민들의 고통과 고충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고 연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감히 강조해봅니다.

- 시민사회단체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특별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공익의식도 가지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동시대의 이웃들과 서민들과 항상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과,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꾸준히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묵묵히 일해 나가자는 낙관과 넉넉한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 또 단체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열심히 진행하되, 시급하고 절실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와 개혁을 위해 “따로 또 같이”의 연대와 연계 정신을 삶과 활동으로 함께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소박하지만 묵묵한 행동과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좀더 성숙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작은 믿음과 성찰이 늘 함께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가 민초들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후원도, 작은 기여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9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공익단체들을 소액이나마 후원하고 있는데, 100개 단체까지 후원하는 단체를 넓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 법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역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주민 중심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1. 유엔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왜 엔지오가 21세기의 희망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을 기억하시나요? 유엔 역사상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전쟁과 질병, 빈곤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이었습니다. 이 코피 아난 총장이 1997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21세기에는 NGO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NGO와 손잡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왜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21세기의 희망은 엔지오라고 했을까요?

(※ 코피 아난은 누구?)

1980년에 국제무대 일꾼으로 뛰어들어 제네바 국제연합 난민구제위원회 고등판무관을 지냈고, 1984년에는 UN 재정부 예산담당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1997 ~ 2006.12 제7대 UN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0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보다 앞서서는 1998년에 제4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정부로서 유엔이 전쟁과 폭력, 질병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엔지오, 각 나라의 엔지오들의 협력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와 현대의 민주주의가 왕과 폭정을 몰아내고 삼권분립과 직접 선거로 실현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구심이자, 시민들의 결사체인 엔지오들과 협치-협력-공조가 각 나라 차원에서, 각 대륙에서도, 세계정부를 운영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타임지는 2006년에 올해의 인물로 YOU를, 2011년에는 올해의 인물로 프로테스터-저항하고 참여하는 사람들(proteser)을,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예 글로벌 엔지오들로 꼽았는데요. 바로 이처럼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당신과, 전 지구적으로, 각 국에서 활동하는 엔지오들

의 활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 그리고 각 대륙,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엔지오의 활동이 너무나도 필수적이기에,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21세기는 엔지오의 시대라고 말했던 것이죠. era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코피아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도,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모토로 1994년도에 참여연대를 주도적으로 창립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는 국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있는 시민단체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유엔에서도 협의적 지위가 인정되어 발언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엔지오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홍사단, YMCA, ywca,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국내 대표적인 엔지오들인데, 바로 이들이 시민들과 함께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며 시민의 나라, 참된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 엔지오들의 활동이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주목도 받고 있고 지지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피스, 월드비전,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페타 등의 세계적인 엔지오들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견인차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섀한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엔지오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국내적으로도, 지구적 차원에서도 엔지오들, 엔피오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났고, 수없이 많은 영역들로 그 활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단체들과 동물권단체들,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페타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엔지오들이면서 실제로 각 국뿐만 아니라 유엔의 정책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의 주요 행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글로벌 ngos를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임현진 · 공석기 공저-글로벌엔지오스 :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

그럼, 세계적인 주간지인 타임지는 왜 올해의 인물로, 통상적으로는 거물급 세계 정치인이거나 스타를 꼽던 것을 넘어서서 당신들과(2006), 저항자들(2011년), 그리고 글로벌 엔지오들(2014년)과 미투 운동(2017년)을 꼽았을까요?

그것은 2006년도에 이미 사이버민주주의와 아이티의 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진척되면서, 이제는 당신들과 평범한 시민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선정한 것이었고, 2011년도에는 세계각국에서 벌어지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저항,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고요, 특히 2014년도에는 아예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등 질병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경없는의사회, 사마리안의지갑, 빌앤드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세계적인 엔지오들과 공익재단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각 나라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미투, 위드유 운동이 뿔뿔히 된 것인데, 타임지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현상의 공통점에는 참여하고 행동하는 개인과, 개개의 시민들이 연대하고 결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를 바꾸어나가는데 앞장서는 엔지오들이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피아난이 말한 엔지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실제로 엔지오와 각 나라에서, 세계 정치와 사회, 경제 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행위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엔지오를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이 공부해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엔지오를 직접 후원도 하고 활동에도 여러 형태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국에 지역 지부 조직까지 해서 2만여개의 NGO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들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NGO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서민들도 행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영화 기생충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문제, 노동과 인간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NGO들의 각별한 분발을 호소드려 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뜻있는 이들의 노력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수없이 많은 NGO들의 헌신이 모이고 또 모였을 때 그것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공공영역을 변화시키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NGO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NGO를 더 공부하고, NGO에 직접 참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NGO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NGO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ngo라는 말은 한두번씩은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ngo라는 말보다는 시민단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에 ngo를 시민단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ngo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라고 말할수 있고, 각 나라에서,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및 정부, 시장 및 기업 조직이 아닌 자발적 시민들의 모임으로서 영어로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칭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들은 모두 ngo인 것입니다. 다만, ngo가 다 시민단체가 아닐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비정부기구이고, 민간인들의 모임이지만 본인들이 시민단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창회, 산악회, 여러 취미의 동우회 등이겠죠. 이들 역시 정부 및 기업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ngo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동창회, 산악회, 동우회들이 시민단체라고 정체성을 두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여러 모임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에서 보면 시민단체가 아닌 이들 모임들도 때로는 역사적 격변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양한 민간인들의 모임 자체가, 정부 및 기업 조직과는 다른 시민들의 네트워크로서, 각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사회참여나 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규모 촛불집회의 역사에 보면, 많은 동창회, 동우회 등이 참여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ngo들은 비정부기구 일뿐만 아니라 npo로도 불리웁니다. 그것은 ngo가 비정부기구일뿐만 아니라 비영리를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즉 ngo는 시장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영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조직이 아니고 오로지 사회 전체의 공익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보호,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취지입니다. NPO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말 그대로 비영리 기구 및 비영리 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내 엔지오와 달리 국제 엔지오는 특정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세계시민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은 1945년 un의 설립과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정치와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ngo는 npo를 표방하고 있지만, npo 중에는 ngo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부 및 기업이 조직한 비영리 기구들은 ngo라 보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적십자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기업들이 만든 공익재단이나 봉사조직 역시 비영리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만, 완전한 비정부 및 비기업 기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ngo는 정부 기구도 기업형 기구도 아니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되, 세계시민 전체나 각 나라 국민들의 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엔지오는 때로는 정부나 기업이 잘 하는 일은 응원하고 칭찬을 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정부비영리의 관점으로 정부나 기업을 감시 견제하면서, 전체 시민들의 편, 공익의 편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 기본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각국에서는 때로는 ngo 활동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국내 엔지오들의 연대로, 또 세계시민사회와의 연계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엔지오들의 꿈과 희망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엔지오들은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 한대로 각 나라와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못 생명이 가장 존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

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각 나라에서 국민으로 태어나지만, 자율적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나지만, 시민으로 거듭난다-제 2의 탄생(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엔지오들이 국내에만 지부 조직까지 해서 2만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엔지오들의 우리 국민들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여기저기 곳곳의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나눔문화>라는 한국의 엔지오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와 인간의 4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과 빈곤, 질병, 그리고 영혼의 불안” 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엔지오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또한 일상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폭력과 편견, 그리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엔지오들의 꿈에 합

께 동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의 존엄성과 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삶을 위한 엔지오들의 분투에 여러분들도 다종다양한 형태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쉬운 사례로 보는 엔지오 활동

“화장실 사례만 봐도 더 많은 엔지오 활동이 절실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이해 못할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이 붐비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용변을 길게 참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거의 평생을 거쳐서 사람들이 조금만 많이 모이는 유원지 및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는 것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다행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권위가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면적을 같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어 그때부터 여성 화장실 면적으로 더 넓게 짓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지금은 위와 같은 풍경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종종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군부독재 정권을 전후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권력층들이 대부분 남성에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던 이들이 많았기에, 남녀 간의 화장실 이용 차이를 감안해서 여성 화장실 면적을 더 크게 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소한 여성들의, 보통의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아주 작은 감수성만 있었어도, 국민을 위하는 애민정신이 조금만 투철했어도 이런 일은 진작에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용 변기 설치 의무화 및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보수적이고 고령의 남성들이 지배하던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아동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젊은 부모들의 고충을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을 포함해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공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별 화장실로 변경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 국민들 구성과 비슷하게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절반쯤 되고, 정부와 지자체에도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쯤 되었다면 이렇게 더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여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딸, 누나, 여동생,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성들도 남녀공용화장실이 불편하고 불유쾌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고속도로나 유원지 등지에서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남성들도 줄을 서고, 여성들은 더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졸음휴게소의 절반 정도에 아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언론이 나서서 졸음휴게소에 왜 화장실이 없느냐라고 따지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졸음휴게서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운전과 불편함 최소화를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졸음휴게소는 더 늘어나고, 그곳에 충분한 화장실(여성 화장실 면적을 합리적으로 더 크게 해서)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사례만 봐도 이 땅에서 왜 더 많은 민생정치, 생활정치, 그리고 엔지오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이 같은 활동이 더욱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공적 정책을 논의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기관과 절차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야 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의 3권 모두를 애국애민(愛國愛民)보다는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고령 비장애인에 부유한 남성들이 지배해오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서민,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모차’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태우는 차가 유아차이면 되었지, 왜 유모차(乳母車)라고 해서 마치 아이는 엄마만 돌보는 것처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역시 유모차라는 말을 붙인 것도 다 남성들이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독박 육아’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런 차별적이고 반국민적인 정치와 정책,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내야 합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과 못 생명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고 성숙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4. 영화 기생충과 민생경제 이야기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기생충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아카데미 영화제 4관왕)에서 최고의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기생충 영화가 빈부격차와 양극화·불평등이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삼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스토리 전개라는 매력을 듬뿍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에 시중의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세계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영화도 매우 잘 만들어졌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불평등 문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기생충 영화에는 현대 한국사회에 등장한 기업형 프랜차이즈들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가족들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해서 박스접기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영화 속 가족들이 ‘대왕카스테라’ 가맹점을 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서민들이 너무나도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가맹본부 등의 횡포와 수탈-무분별한 과다 출점으로 인해 망하게 된 현실 등을 짚고 있는 것이라 추정해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2017년 즈음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대만산 대왕 카스테라는 가맹본부 브랜드만 수십 개, 가맹점들만 수백 개가 넘게 생기며 성황을 이루었다가 현재는 가맹본부 브랜드도, 가맹점도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당시 가맹본부들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과 원자재 등에 대해 한 종편 프로그램의 비판적 보도가 나간 후 급속도로 가맹점들이 망하거나 줄기 시작했는데요. 그 종편이 과잉·과장 보도를 했다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이미 많은 가맹점들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단, 대왕카스테라만의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정리해고니, 명예·희망퇴직이니 각종 해고가 성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더 큰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에 수십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대리점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가슴 아프지만, 실제 양극화·불평등의 현실은 그보다 더 비참했으면 비참했지 더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하고, 각종 중소기업 살리기 및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실제로 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러 통계나 공식 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빈부격차 해소 및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6.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8년 전국 성인 3,873명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가 39.7%, ‘약간 동의’가 45.7%로 무려 85.4%에 달했습니다.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일생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 ‘약간 높다’도 36.6%에 그쳤고, ‘매우 낮다’는 의견은 15.3% ‘약간 낮다’는 41.2%를 차지했습니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고, ‘약간 높다’는 44.1%, ‘약간 낮다’는 36.0%, ‘매우 낮다’는 8.9%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에서도,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상위 20% 고소득층과의 격차와 양극화는 그대로 이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에 당연히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자영업 가구나 무직·실직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소득이 하향되다 보니 하위 20% 계층의 소득 전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영업자 살리기 및 지원 대책, 무직·실직가구에 대한 민생복지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

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대한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서민가계가 여전히 어렵거나 더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일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일부 늘었어도 집집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교육비·주거비(부동산 구입비 또는 전월세 감당 비용)·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기업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도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인 정부에서 가계의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집값)·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집값)·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양극화 및 자산 불평등 문제로 인해 실제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살맛이 안 나는 심리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빈부격차와 양극화·불평등 문제도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통합·국민통합도 요원하기만 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파국’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는 바로 그런 문제점들 생생하게 보여주고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평론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정치인·행정가들 모두가 문제인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빈부격차와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해왔던 전국의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비정부기구(NGO)들도 더욱 더 분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들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NGO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서민들도 행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영화 기생충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문제, 노동과 인간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NGO들의 각별한 분발을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5. 안진걸 강사의 현재 활동 이야기

안진걸은 현재는 민생경제연구소장,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 상지대 초빙교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등으로 일하고 있고, 전에는 참여

연대 사무처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경희대 강사, 국민대 강사,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애인자립대학 강사 등으로 일했습니다. 최근 <되돌아보고쓰다-가난한이들을위한민주주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은 2018년 3월 사랑했던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은 서민경제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추진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여러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지대 초빙교수, 경희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장애인자립생활대학 강사로 많은 학생들과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청년-서민-장애인-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2020년에는 tbs tv에서 TV민생연구소 프로그램을 곽현화 개그우먼, 박철민 방송인과 함께 진행하면서 매일 6시에 오직 민생-서민-을들을 위한 방송을 세상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되돌아보고쓰다-가난한이들을위한민주주의> 책도 펴낸 후, 전국에서 책과 관련한 강의, “세상을 바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책, “세상을 바꾸는 ngo 스토리”(가칭)를 펴낼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 안진걸은 2016년~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올인’하면서, 그때 6달 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촛불시민혁명에 주력한 것을 평생의 보람과 긍지로 여기며, 또 함께 해주신 수천만의 촛불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제 공공기관, 제 정치세력들도 정말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문제의 해결, 노동 존중,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일, 사회 곳곳의 부당한 적폐 청산 등에 역행 또는 소홀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응하고, 대안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개혁과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면서도, 잘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세로 냉정하게 비판도 하고 관련 대응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다종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고, 이는 무척 좋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로서 노동존중, 환경문제 대응, 국민들의 안전권 확보,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축복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불공정 문제에 시달리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고통과 부담에 절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뛰어들고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수행하는 공익활동 하나 하나, 시민사회 인사들이 하는 사회 개혁 추진 활동 하나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맞지만, 당대 시기의 민초들과 서민들의 고통과 고충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고 연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감히 강조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민생경제연구소가 민초들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후원도, 작은 기여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공익단체들을 소액이나마 후원하고 있는데, 100개 단체까지 후원하는 단체를 넓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 법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 민주공화국민생공동체의 미덕인 기부와 사회적 연대는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기사 소개(김철관 기자)

“방송인 안진걸, 열악한 '인권시민단체-지방대'에 2천2백만원 만원 기부에 이어 우분투재단에도 기부 - <되돌아보고쓰다> 책 인세, 상지대 강의로, <tbs tv민생연구소> 방송 출연료 등 모아 사회환원”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한 시민활동가가 방송출연료, 강사료, 책 인세 등을 모아 인권단체 등에 2천2백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최근에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 및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의 각종 비리에 대한 고발·엄벌 운동 및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올 연말연시를 맞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단체 실무진들의 공익협동조합, 열악한 지방대 등에 2천2백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 것이다.

안진걸 소장은 최근인 11월 말에 인권재단‘사람’에 1천 만원, 강원도 상지대에 1천 만원, 공익활동가협동조합에 200만원 등 총 2천 200만원을 기부했다. 그 전에도 그는 참여연대, 통일맞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에도 소정의 별도의 기부를 하기도 했고, 90여곳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단체에 매달 정기 후원을 하고 있으니 실제 기부금액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그는 “한국사회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인권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시민사회단체 실무진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또 비리 재단을 장기간의 투쟁 끝에 어렵게 몰아내고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지방대의 경우 대학재정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원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저도 나름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저 보다 힘든 조건에 있는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그들을 돕은 공익재단과 열악한 지방대에 대한 기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상지대 초빙교수로 받은 강의료, 저서 <되돌아보고 쓰다>(북콤마 출판사) 인세, tbs <TV민생연구소> 진행료 등 일부를 모아서 기부금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2018년 <되돌아보고 쓰다> 책의 인세를 1차로 기부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그 이후 받은 인세를 모두 기부했다. “<되돌아보고 쓰다> 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판매분 인세 전액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니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독해주시는 것이 소박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초빙교수 급여, 책의 인세, 방송 출연료 등의 돈은 사회로부터 받은 돈이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나 응원해주신 분들이 제게 보내준 돈을 모았다가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기부한 것”이라며 “제가 기부를 한 열악한 인권·시민단체들이 잘돼야 우리 사회의 공익과 휴머니즘에 기반한 진보가 더욱 더 많이 실현될 것이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과 건강도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몇 번이고 기부 문화의 확산과 공익활동·사회연대 활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월 12일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일자리 창출, 저소득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사회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첫 번째 개인 기부약정자로 나서기도 해서 또 한 번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사무실은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무금융우분투 재단의 “우분투(Ubuntu)”는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로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공유정신을 의미한다. 우분투 재단은 현재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 활동의 모범과 전형으로 수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안 소장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직업병과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인 녹색병원 후원에 앞장선 사무금융노조와 우분투재단의 사회적 연대와 선행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 소장은 “제 스스로 우분투재단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공익 활동과 더 많이 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많은 제작진들과 제가 <tbs tv민생연구소> 방송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호탕하게 웃기도 했다. 안 소장은 특히, 최근에 전형적인 사학폭벌 세력의 비리로 큰 지탄을 받아온 원석학원(경북 경주 소재) 소속의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원·연대를 당부했다. 안 소장은 “유치원(유아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사학비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유아학교 시절의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유치원 개혁 3법 통과, 사학비리 완전 척결, 사학비리 세력에 피해당했던 지방대 살리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사학비리·입시비리·채용비리 주도세력 엄벌·퇴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년 동안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에서 헌신하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방송인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안진걸, 그의 꿈과 희망이 반드시 더 큰 사회적 결실로 이어질 것을 본다.